

# 청년 실업의 경제적 비용 산정 연구: 부·울·경 지역 니트 청년을 중심으로<sup>1)</sup>

이미숙<sup>2)</sup>, 진형익<sup>3)</sup>, 이에리<sup>4)</sup>

- 
- 1) 본 연구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과 중간세미나에 참석해주신 권오혁 교수님, 김완중 교수님, 서옥순 연구위원님, 홍지훈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 2) 창원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부 부교수
  - 3) 새로운기준lab 대표
  - 4) 한국은행 부산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 본 연구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기관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함

## < 요약 >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1. 청년 니트 관련 선행연구 검토
2. 청년 니트의 경제적 비용 관련 선행연구 검토

### III. 연구 방법 및 결과

1. 분석 자료 및 모형
2.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한 청년 니트 추정 결과
3.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한 청년 니트 추정 결과
4. 청년 니트의 경제적 비용 추정 결과

### IV. 결론

### 참고문헌

## < 요약 >

청년 실업은 청년의 사회 진입 및 독립 시기를 늦추고 부모 세대에는 부담을 높이는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청년층의 소외감, 우울감 등의 심리적 불안, 경제활동인구로서의 박탈감, 사회적 불만 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청년층 고용률이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청년층 실업률도 2018년 이후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다. 학업이나 일을 하지 않고, 취업을 준비하는 정규적인 교육도 받지 않는 청년을 의미하는 청년 니트(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현상중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청년 니트의 규모를 추산하고, 니트 청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정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한국노동패널 자료와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부·울·경 지역 니트 청년 규모 추정은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청년 니트의 경제적 비용의 경우 청년 니트 1인당 연간 경제적 비용을 추산하고 여기에 앞서 추정된 지역별 청년 니트 인구를 감안하여 지역별 총 경제적 비용을 산출하였다. 1인당 경제적 비용 추정시 청년의 취업이 반드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추정하였다. OECD(2016), 유진성(2019) 등의 방법론을 따라 우리나라 청년 니트 1인당 경제적 비용은 니트 청년이 취업하였다면 받게 될 가상의 예상 임금에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정의하였다. 니트 청년이 취업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가상의 임금은 직접 관측될 수 없으므로 취업확률이 유사한 취업 청년과 니트 청년을 매칭하는 유진성(2019)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취업 결정 모형의 추정에는 다양한 취업 결정 요인을 분석해볼 수 있는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였다.

2015~2019년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통해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청년 니트 규모를 추정된 결과, 2019년 기준 부·울·경 전체의 청년 니트 규모는 약 21만 명이며, 지역별로는 부산 8.6만 명, 울산 3.5만 명, 경남 9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2019년 청년 니트 비율은 울산 18.6%, 경남 17.5%, 부산 15.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청년 니트 비율은 최근 5년간 세 지역에서 모두 상승하였으며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청년 니트를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구직 니트와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인 비구직 니트로 구분할 때, 부·울·경 지역의 구직 니트 비율과 비구직 니트 비율은 최근 5년간 모두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구직 니트에 비해 비구직 니트의 규모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청년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가진 취업 청년과 니트 청년을 매칭함으로써 우리나라 니트 청년 1명이 유발시키는 평균적인 경제적 비용의 크기를 추정하였다. 청년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여부, 거주지역, 가구주 여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개인 특성 변수, 직업훈련경험과 자격증 유무 등의 취업준비 특성 변수, 그리고 가족 구성원 수, 부모님과 동거 여부, 입주형태, 가구소득 등의 가구 특성 변수를 함께 고려하였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모형 추정 결과를 바탕

으로 성향점수가 가장 유사한 취업 청년과 니트 청년을 매칭한 결과, 니트 청년의 예상 소득 추정치는 취업 청년 평균임금의 약 80~9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결과를 종합하여 청년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산정한 결과, 2019년 기준 부산 지역 니트 청년의 경제적 비용은 약 2조 400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부산 GRDP의 2.1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리고 울산 지역 니트 청년의 경제적 비용은 약 8,194억 원으로 울산 지역 GRDP의 1.10% 수준이며, 경남 지역 니트 청년의 경제적 비용은 약 2조 1,335억 원으로 경남 지역 GRDP의 1.8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울·경 지역에서 니트 청년으로 인해 유발되는 경제적 비용을 합산하면 2019년 기준 약 5조 원(GRDP의 1.77%)에 육박하며, 이는 2015년에 비해 1조 1,160억 원 증가한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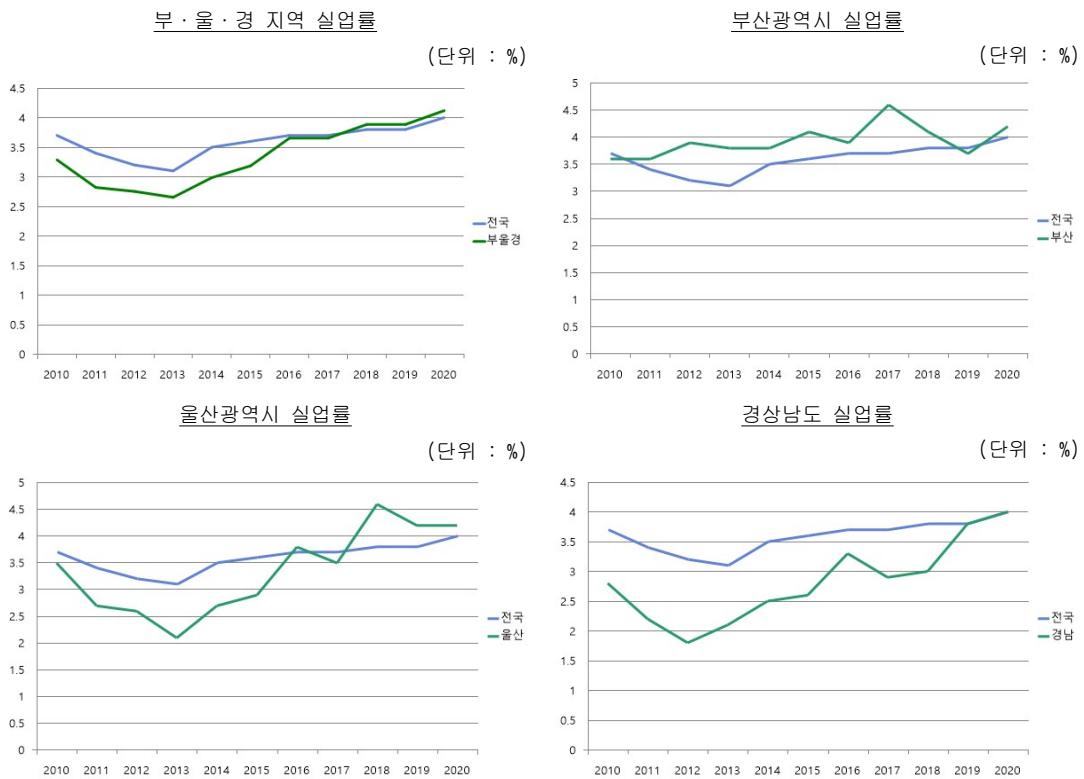
본 연구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청년 니트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그동안 지역 단위의 청년 니트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클 수 있다. 다만, 분석 자료의 제약으로 추정치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전국 단위로 수집된 표본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자료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 추정 결과의 적합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청년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론의 측면에서도 청년의 지역 간 이동이나 소득 분포 등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는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별 청년 니트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고용 및 실업 지표 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등 후행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 I. 서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실업률은 2013년에 3.1%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평균 실업률은 4.0%를 기록하였다. 이는 IMF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률의 급등 현상(1998년 7.0%, 1999년 6.3%, 2000년 4.4%, 2001년 4.0%)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sup>1)</sup> 특히 2020년에는 갑작스런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한 충격의 영향이 있었으며, 이 외에도 산업 구조의 변화, 노동 시장의 경직성, 경제 활력 둔화에 따른 투자 감소 및 노동 수요 약화 등 다양한 원인을 들 수 있다.

부산, 울산, 경남으로 대표되는 동남권 지역의 실업률은 당초 전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8년을 기점으로 전국 실업률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은 기계, 자동차, 조선, 물류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성장 동력 상실 등 제조 산업의 쇠퇴가 부·울·경 지역의 실업률 상승에 공통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전국 및 부·울·경 지역의 실업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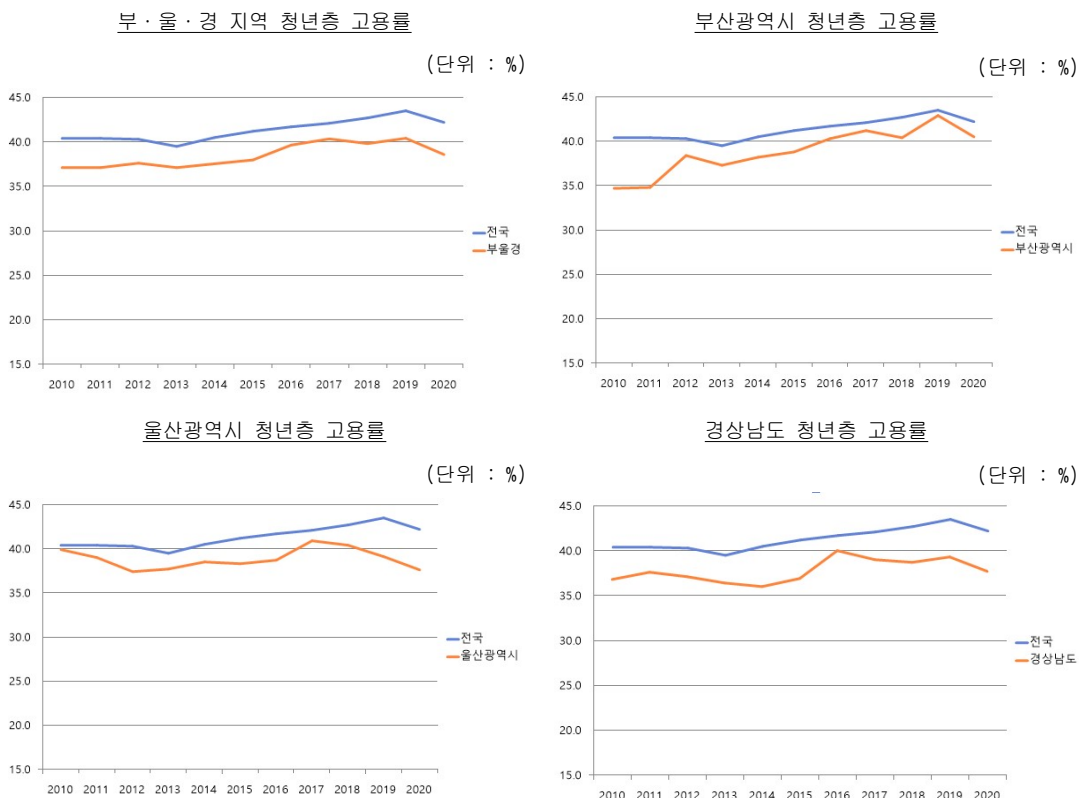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원자료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참조.

2020년 기준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지역별 실업률 자료를 살펴보면 부산 4.2%, 울산 4.2%, 경남 4.0%로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부산 지역은 대체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울산은 2013년 이후 실업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다가 2016년부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경남은 2012년 기준 2% 이하의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으나 2012년 이후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여 2019년부터 전국 평균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그림 1> 참조).

이와 같은 실업률의 상승과 함께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이슈 중 하나는 청년층의 고용 부진 현상이다. 전국 기준의 청년층 실업률은 역시 2013년 8.0%에서 2020년 9.0%로 함께 상승하였으며, 청년층 고용률은 2013년 이후 2019년까지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전년 대비 1.3%p 하락한 42.2%로 집계 되었다. 2020년 청년층 실업률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7년 전후보다 더 높은 수치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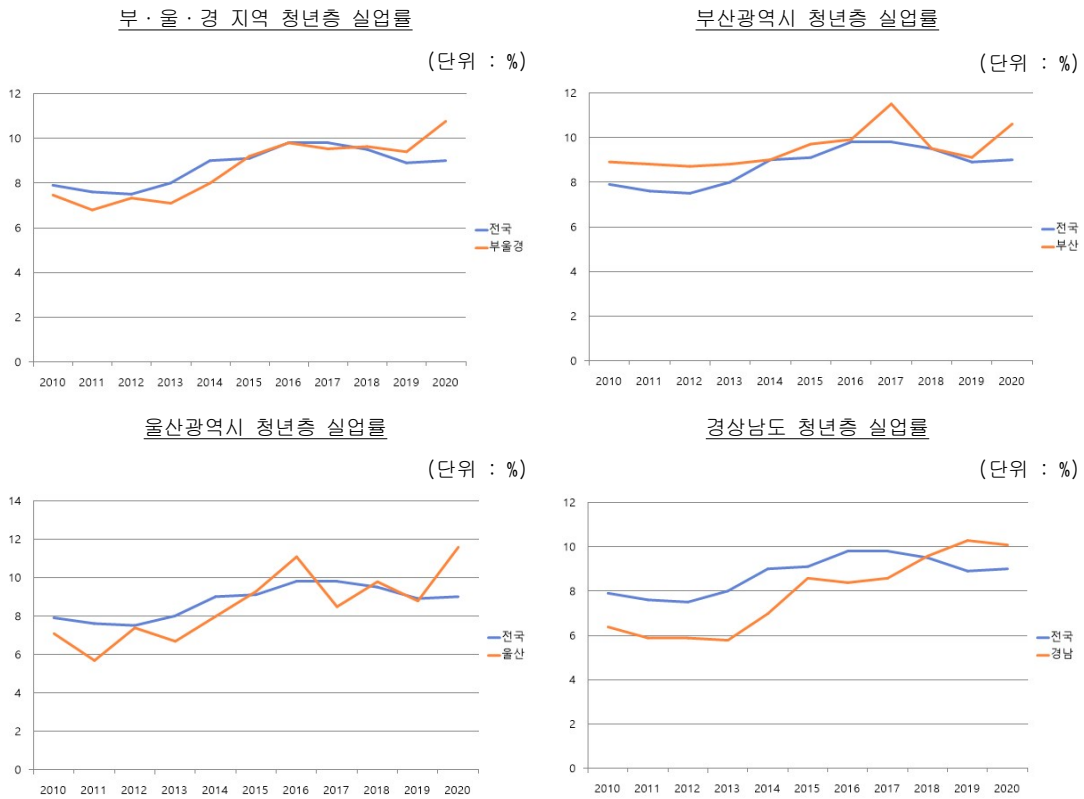
<그림 2> 전국 및 부·울·경 지역의 청년층 고용률 변화



주 : 청년층은 15~29세를 기준으로 함.  
 자료 : 통계청 원자료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세부적으로 부·울·경 지역의 청년층 고용률은 전국의 청년층 고용률보다 낮은 수치지만, 2010년 이후 완만히 상승하다가 2019년 이후 하락하는 등의 변화 추이는 대체로 유사하다(〈그림 2〉 참조). 2010년 기준 청년층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지역은 울산이었지만(울산 39.9%, 경남 36.8%, 부산 34.7%), 2020년 기준으로는 부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부산 40.5%, 경남 37.7%, 울산 37.6%).

〈그림 3〉 전국 및 부·울·경 지역의 청년층 실업률 변화



주 : 청년층은 15~29세를 기준으로 함.  
 자료 : 통계청 원자료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한편 청년층 실업률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모두 상승하고 있으며 많은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해 체감 실업률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기준 부산, 울산, 경남지역별 청년층 실업률 자료를 살펴보면 부산 10.6%, 울산 11.6%, 경남 10.1%로 전국 평균 청년층 실업률 9.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10년간 청년층 실업률은 부산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울산과 경남에 비해서도 대체로 높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및 〈표 1〉 참조).

<표 1> 부·울·경 지역별 경제활동 및 실업 관련 지표

(단위 : %, 천 명)

지역	지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부산 광역시	경제활동참가율	56.3	56.6	58.2	58.4	59.0	58.7	58.5	59.0	58.1	58.8	58.1
	고용률	54.3	54.5	55.9	56.1	56.7	56.3	56.2	56.3	55.7	56.6	55.6
	실업률	3.6	3.6	3.9	3.8	3.8	4.1	3.9	4.6	4.1	3.7	4.2
	실업자수	60	61	67	67	67	71	69	81	71	65	72
	취업자증감	6.3	15.8	44.4	10.4	23.3	-8.9	1.5	-1.3	-27.6	18.6	-35.9
	청년고용률	34.7	34.8	38.4	37.3	38.2	38.8	40.3	41.2	40.4	42.9	40.5
	청년실업률	8.9	8.8	8.7	8.8	9.0	9.7	9.9	11.5	9.5	9.1	10.6
울산 광역시	경제활동참가율	61.2	61.4	61.3	60.3	59.9	60.8	61.3	61.9	61.8	61.7	60.7
	고용률	59.1	59.8	59.8	59.0	58.3	59.0	59.0	59.8	59.0	59.1	58.1
	실업률	3.5	2.7	2.6	2.1	2.7	2.9	3.8	3.5	4.6	4.2	4.2
	실업자수	19	15	15	12	16	17	23	21	28	25	25
	취업자증감	9.7	16.0	10.3	3.9	2.7	16.2	3.1	7.9	-9.4	-2.8	-11.0
	청년고용률	39.9	39.0	37.4	37.7	38.5	38.3	38.7	40.9	40.4	39.1	37.6
	청년실업률	7.1	5.7	7.4	6.7	8.0	9.3	11.1	8.5	9.8	8.8	11.6
경상 남도	경제활동참가율	61.4	62.1	61.3	61.6	61.7	62.2	62.7	62.7	63.3	63.7	63.1
	고용률	59.7	60.7	60.2	60.3	60.2	60.6	60.6	60.9	61.4	61.3	60.6
	실업률	2.8	2.2	1.8	2.1	2.5	2.6	3.3	2.9	3.0	3.8	4.0
	실업자수	45	36	31	35	43	46	59	52	54	69	72
	취업자증감	14.2	48.9	5.2	22.6	19.1	30.9	13.2	18.8	23.5	2.5	-19.4
	청년고용률	36.8	37.6	37.1	36.4	36.0	36.9	40.0	39.0	38.7	39.3	37.7
	청년실업률	6.4	5.9	5.9	5.8	7.0	8.6	8.4	8.6	9.6	10.3	10.1

주 : 청년층은 15~29세를 기준으로 함.  
 자료 : 통계청 원자료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물론 실업률이 높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 여건이 무조건 악화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경제 활동의 부진과 노동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실업률이 상승하는 현상은 노동 시장의 문제로 볼 수 있지만, 경제 전반적인 노동 공급 확대에 의한 실업률 상승 현상은 오히려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의 증가는 청년의 사회 진입 및 독립 시기를 늦추고 부모 세대에는 부담을 높이는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높은 청년층 실업률이 고착화되면서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이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경제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는 시기의 청년층이 경제활동 인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지역 사회의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미취업 기간이 1년 이상인 청년층 비율은 43%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사회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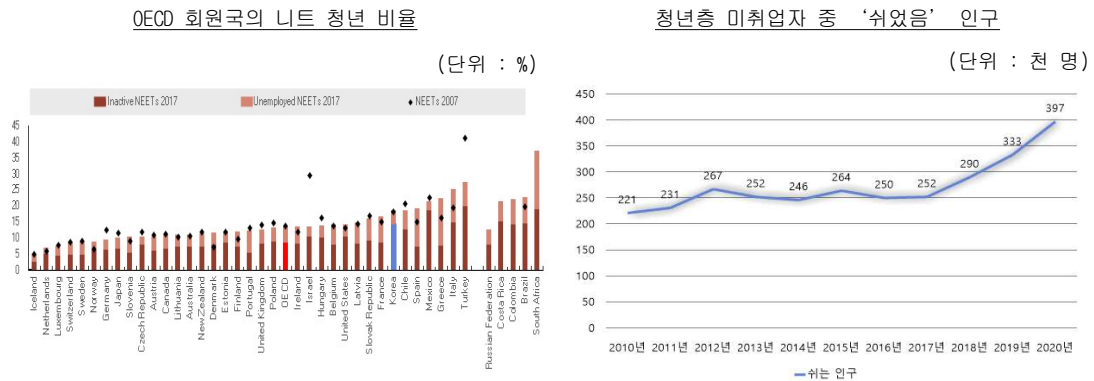


층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실업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년 개인의 차원에서 실업 장기화는 소외감, 우울감 등의 심리적 불안, 경제활동인구로서의 박탈감과 사회적 불만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실업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를 포기한 청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최근 크게 대두되는 문제로 청년 니트의 증가 문제를 들 수 있다. 영국에서 최초로 정의된 니트(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는 학업이나 일을 하지 않고 취업을 준비하는 정규적인 교육도 받지 않는 청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또는 취업자가 아니고, 정규 교육기관이나 취업을 위한 기관, 학원에 다니지 않으며, 육아와 가사를 주로 담당하지 않는 15~29세 미혼 청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청년 니트는 구직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구직 니트 및 비구직 니트로 구분되며, 특히 비구직 니트의 증가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OECD와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니트 청년의 증가 현상에 주목하여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제안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니트 청년을 게으르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청년 등으로 인식하며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고 있어 니트 청년 정책이나 사업 진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지속되는 청년 실업 문제와 청년층 우울감,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니트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림 4> 우리나라의 니트 청년 관련 지표



주 : '쉬었음'은 일할 능력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쉬고 있는 인구를 의미함.  
 자료 : OECD(2019),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미취업기간 활동별 미취업자 원자료 가공.

우리나라의 니트 청년 비율은 OECD 국가 중 7번째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구직 활동에 지치거나 포기한 청년을 의미하는 “쉬고 있는 청년”의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3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4〉 참조). 이러한 니트 청년 발생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비용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김유선(2017)에서는 니트 청년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비용을 2016년 기준 최소 23조 8천억 원, 최대 41조 5천억 원으로 추정하였으며, 유진성(2019)에서는 2017년 기준 국내 GDP의 2.7%인 49조 4천억 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청년층은 교육, 구직 등의 이유로 다른 세대보다 이동이 활발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많은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기회가 제공되는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인구감소 현상과 더불어 청년층의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 소멸,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청년층의 니트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니트 청년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나 지표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며, 지역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대상으로 니트 청년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니트 청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지역은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청년층 유출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니트 청년 현황과 경제적 비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에 화두를 던질 수 있으며, 지역별 청년실업 대응 정책 수립과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후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청년 니트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특히 청년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를 수행한다. 3장에서는 분석 자료와 모형에 대해 소개하고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청년 니트 현황 및 경제적 비용 산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부·울·경 지역의 청년실업 대응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청년 니트 관련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의 목적인 지역의 청년 니트에 대한 자료 수집 및 현황 분석에 앞서 본 절에서는 먼저 청년 니트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다. 니트에 대한 정의는 실업자 및 취업자와 달리 국제적인 표준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니트가 전통적인 실업자에 더해 자발적인 구직 포기자 등 다양한 그룹으로 구성된 이질적인 집단(heterogeneous population)의 특성을 가지며, 국가마다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실제로 니트의 정의는 국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영국 및 뉴질랜드에서는 니트를 정의할 때 10대 청소년층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으면서 취업하지 않고,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15~34세의 미혼 계층을 일본형 니트 또는 무업자로 분류하고 있다(금재호 외, 2007).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011)는 취업하지도 않고,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15~24세 청년층을 니트로 정의하였다. OECD(2014)는 정규교육(formal education)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일도 하지 않는 15~29세 청년층을 니트로 정의하고 있는데,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나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도 니트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업률보다 니트가 청년 구직의 어려움을 측정하는 좋은 척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OECD(2014)는 니트를 실업형 니트(unemployed NEET) 및 비경제활동형 니트(inactive NEET)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하는 비경제활동형 니트가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니트의 정의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OECD나 유럽연합 등과 달리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표 2> 참조). 먼저 남재량(2006)은 일본에서 사용한 청년 무업자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니트의 기준을 정의하였다. 여기서는 지난 1주일간 취업자가 아니면서 정규교육기관, 입시학원 또는 취업 목적의 학원·기관에 통학하지 않고,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배우자가 없는 15~34세 개인을 니트로 규정하였다. 이에 더해 니트를 구직 니트와 비구직 니트로 구분하였는데, 전자는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인 실업자를 뜻하는 반면 후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한다는 차이가 있다.

<표 2> 니트의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 비교

선행연구	니트 정의	특이 사항
남재량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주일간 취업자가 아니면서 정규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또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에 통학하지 않고,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배우자가 없는 15~34세 개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니트를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인 실업자인 구직 니트와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인 비구직 니트로 구분</li> </ul>
금재호 외(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자, 정규교육기관·입시학원 통학자, 육아, 심신장애, 군 입대 대기, 결혼준비 등을 제외한 15~29세 비경제활동인구</li> <li>• 기혼자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뿐만 아니라 무급가족종사자도 니트에 포함</li> </ul>
채창균 외(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 1 : 비경제활동 인구 중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을 쉬었다고 응답한 사람</li> <li>• 유형 2 : 유형 1 + 비경제활동인구 중 미혼으로 가사를 주로 하는 사람</li> <li>• 유형 3 : 유형 2 +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일 간 주된 활동이 발령대기,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 입대 대기, 결혼 준비, 기타인 사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가지 유형으로 니트 정의</li> </ul>
이규용 외(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자, 일시 휴직자, 정규교육기관 재학 학생, 입시 학원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자 등을 제외한 사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해 니트를 정의</li> </ul>
김종욱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이나 취업자가 아니며, 정규교육기관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가사육아를 주로 하지 않는 15~29세 미혼 청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활용해 니트를 정의</li> </ul>
김기현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자도, 재학생도 아니면서 학원이나 직업훈련 기관에 통학 중이지 않는 15~29세 청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니트족 유형을 취업준비형, 진학준비형, 돌봄가사형, 휴식포기형, 질병장애형으로 구분</li> </ul>

자료 : 저자 작성.

금재호 외(2007)는 니트의 범위에서 취업자, 정규교육기관 및 입시학원 통학자, 육아, 심신장애, 군 입대 대기, 결혼준비 등에 해당하는 개인을 제외하였으나, 기혼자는 포함하였다. 다만 청년의 연령층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에 더해 무급가족종사자 또한 니트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채창균 외(2008)는 니트를 15~29세의 유향 청년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을 설명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주된 활동을 쉬었다고 응답한 사람만 니트로 보는 것이며, 두 번째 유형은 첫 번째 기준과 함께 비경제활동인구 중 미혼으로 가사를 주로 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에서는 두 번째 기준과 함께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일 간 주된 활동이 발령대기,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 입대 대기, 결혼 준비, 기타인 사람을 포함하였다.

이규용 외(2015)에서는 취업자, 일시 휴직자, 정규교육기관 재학 학생, 입시 학원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자 등을 제외한 사람을 니트에 속하는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김종욱(2017)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니트를 추정하였는데 학생과 취업자가 아니고, 정규교육기관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가사·육아를 주로 하지 않는 15~29세 미혼 청년을 니트로 규정하였다.

실업자와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는 모든 비경제활동인구를 니트로 정의하는 OECD와 비교할 때 국내 선행연구에서 정의하는 니트의 기준이 다른 이유는 한국적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재수생은 더 좋은 대학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취업에서 배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훈련의 기회를 상실할 위험이 적고 비교적 양질의 교육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이 입시학원 통학, 진학준비 등인 경우 니트에서 제외하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 역시 신입직원 채용에서 시험을 통한 선발방식을 고수하는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이 취업준비인 경우 니트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육아, 가사 등을 주로 하는 경우에도 니트에서 제외하고 있다.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등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유이므로 이 역시 니트에서 제외하고 있다(문순영, 2019).

다음으로 니트 청년의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로서 채창균 외(2015)는 니트 청년이 외향성, 친화성, 개방성 등의 성격 요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갖는다고 설명하였으며 정서적 불안이나 자아 존중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남재량(2006)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니트 청년이 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설명하였지만, 정현상(2016)은 오히려 가구소득이 높은 청년의 경우 부모의 경제적 지원으로 인해 장기간 취업 준비 및 대학원 진학 등 자발적 상태의 미취업, 실업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Mendolia and Walker(2015)는 성격 요인 중 자아 존중감이 낮을수록 니트 청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Carcillo and Königs(2015)는 남성보다 여성이, 그리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니트 청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기현(2017)은 청년 니트의 특징을 연령별로 구분하였으며, 15~19세 청소년의 경우 진학 준비로 인한 진학준비형 니트 비율이 높은 반면 20~24세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형 니트 비율이 높은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가구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니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박가열·정연순(2010)은 니트 청년으로 유입되는 공통적인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까지 진로 탐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청소년기에 적절한 진로 교육이 부재한 점 등을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유진성(2019)에서는 개인의 성별, 학력, 부모의 교육수준, 가구의 소득수준, 취업 및 직업훈련의 경험에 따라 청년 니트의 비중에 차이가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최근에는 남성 청년의 니트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아진 점이 특징적이다.

이처럼 청년 니트와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청년 니트를 어떻게 정의하며, 청년

니트의 특징이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한 청년 니트의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된 상황이며 연령, 소득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훈련 경험 등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표 3>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청년 니트의 특징을 비교한 자료이며, 연구자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청년 니트의 특징에 대한 선행연구 비교

구분	남재량 (2011)	오민홍 (2007)	채창균 외 (2008)	김재호 외 (2007)	정연순 외 (2014)	한연희 (2014)	이로미 외 (2010)
나이	15~34세	20~29세	15~29세	15~29세	20~29세	23~30세	20~29세
경제활동	지난 1주간 구직활동 기준, 실업자 외			구직무급종사자 및 시업자 포함	경제활동 연급 없음	실업자 포함 심신장애자 포함	지난 1년간 구직활동 기준, 실업자 외
정규교육	정규교육 미참여자						
훈련	입시 및 취업학원 미통학자	직업훈련 미참여자	입시 및 취업학원 미통학자	입시학원 미통학자	직업훈련 미참여자	직업훈련 미참여자	입시 및 취업학원 미통학자

자료 : 채창균 외(2008), 정홍인 외(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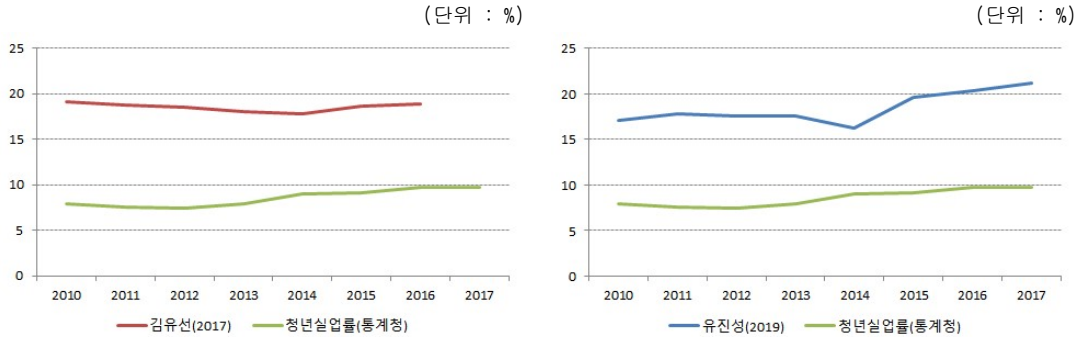
한편 이러한 기준을 통해 정의된 청년 니트가 실제로 실업 청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그림 5> 참조). 대표적으로 김유선(2017)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청년 니트의 비율을 집계하였으며, 2010년 19.1%에서 2014년 17.8%까지 하락하다가 2016년 18.9%로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동일한 시기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청년 실업률은 2010년 7.9%에서 2021년 7.5%로 소폭 감소하다가 2017년 9.8%까지 다시 상승하고 있어 청년 니트 비율과 차이를 보인다. 김유선(2017)에서 추정된 청년 니트 비율은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의 약 2.22배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유진성(2019)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청년 니트 비율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7%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 19.6%, 2016년 20.4%, 2017년 21.2%로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청년 실업률과 비교하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7%대를 유지하다가 2016년 이후 9.8%까지 계속 상승한다는 점에서 변화 경향은 유사하지만, 등락 시기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한다. 유진성(2019)에서 추정된 청년 니트 비율은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의 약 2.16배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청년 실업과 청년 니트는 유사한 변화 추이를 보이면서도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며, 청년 니트 비율이 청년 실업률의 약 2배에 해당하는 넓은 범위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 선행연구의 청년 니트 비율과 청년 실업률의 비교

김유선(2017) vs. 청년 실업률

유진성(2019) vs. 청년 실업률



자료 : 김유선(2017), 유진성(2019)의 연구결과와 통계청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청년 니트의 발생 및 증가 원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지만, 사회경제적 상황에 의한 영향은 청년 실업률의 변화 요인과 유사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종욱(2017)은 청년이 경제활동을 할 필요가 없어서 경제활동 참여를 유보하고 있거나, 노동시장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여 의지가 줄어든 경우를 청년 니트 비율의 증가 원인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어려운 노동 시장에서 굳이 구직 활동을 유지하여 실업 상태에 놓일 유인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장현(2019)은 사회경제적 상황과 청년층의 좌절감을 청년 니트 증가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사회경제적 상황으로는 최근 고용 없는 성장 국면, 제조업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좋은 일자리 감소, 경력직 우선채용 관행 확산, 고학력화와 숙련의 불일치,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하고 싶어도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의 상황을 좌절감으로 표현하였으며, 취업문은 쉽게 열리지 않고 준비기간이 늘수록 경제적 부담은 커지며, 최선을 다 했지만 결국 번아웃(burnout) 되는 경험이 취업 포기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홍진주(2021)는 니트 청년 8명과의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경제·사회적 원인과 개인적 원인을 구분한 바 있다. 성인기를 준비하기 위한 기회의 배제,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문제, 정책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지원체계 등을 경제·사회적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 인적자본의 부족으로 인한 기회 박탈, 좌절과 두려움으로 인한 자신감 상실 등이 개인적 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 외에도 고학력자의 일자리 매스매칭, 부모 및 가정의 경제적 지위, 자아 탐색 및 직업 교육 등과 같은 요인이 청년 니트의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노현주·김윤태, 2019; 김기현, 2019; 이민서·김사현, 2021; 조대연 외, 2018), 이러한 원인들이 지난 몇 년간 해결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가중되면서 청년 니트 및 청년 실업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 2. 청년 니트의 경제적 비용 관련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청년 니트 현황에 대한 자료를 도출하고, 청년 니트로 인해 유발되는 경제적 비용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청년 니트에 대한 선행연구 중 경제적 비용 산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검토하고 적절한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한다(〈표 4〉 참조). 청년 니트의 경제적 비용 산정과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 OECD(2016)에서는 OECD 국가별로 청년 니트가 취업했을 경우 벌어들일 수 있는 총 근로소득을 청년 니트의 경제적 비용으로 정의하였으며, 2014년 OECD 회원국의 청년 니트가 유발한 경제적 비용을 5,600억 달러로 추정하였다(최소 3,600억 달러, 최대 6,050억 달러). 다만, 한국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분석 대상 국가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후 한국노동사회연구소(김유선, 2017)에서 OECD의 방법론을 차용하여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가 유발하는 경제적 비용을 산정한 바 있으므로 본 절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하였다.

OECD(2016)에서는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청년 니트가 향후 취업하면 받게 될 총 노동소득을 니트의 경제적 비용으로 정의하였으며, 사용자의 사회보장 분담금을 포함하는 총 노동비용으로 측정된 바 있다. 여기서 니트가 취업하면 받게 될 총 노동소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경제적 비용 추정 방식은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청년 니트는 향후 취업을 하더라도 성별과 연령이 동일한 취업 청년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는 경우이다. 이 때 취업 청년 임금 중위값의 2/3을 니트의 미래 노동소득으로 적용하며, 이는 니트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하한 추정치라 할 수 있다. 둘째, 청년 니트는 성별과 연령이 동일한 취업 청년 임금과 동일한 수준의 미래 노동소득을 받을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이를 상한 추정치로 설정할 수 있다. 셋째, 점 추정치 방식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가족관계 등 관측 가능한 특성이 동일한 취업 청년 임금을 니트의 미래 노동소득으로 가정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김유선(2017)에서는 공식 교육과 취업에서 배제된 만 15~29세 청년을 청년 니트로 정의하였으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니트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상기 기준에 따라 청년 니트 수는 전체 청년 인구에서 재학생과 취업자를 제외하여 구할 수 있으며, 이렇게 산정된 청년 니트는 그 성격에 따라 실업 니트와 비경제활동인구 니트, 또는 구직 니트와 비구직 니트로 구분될 수 있다. 분석 결과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는 약 178만 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1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년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OECD(2016)의 하한 추정치와 상한 추정치 방식을 사용하였다. 먼저 하한 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성별, 연령별 중위임금의 2/3을 구하고 여기에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분담금(임금의 9.36%)을 더하면 된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실제 임금이



적게 보고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성별, 연령별 중위임금의 2/3을 구하였다. 이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도출한 청년 니트의 수를 곱하면 총 노동소득이 계산되며 이를 청년 니트의 경제적 비용 하한 추정치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상한 추정치를 도출하는 방법은 하한 추정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중위임금의 2/3 대신에 성별, 연령별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다만, 중위임금 및 평균임금이 월간소득이므로 연간 니트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12개월로 환산한 필요가 있다.

**<표 4> 청년 니트의 경제적 비용 관련 선행연구 비교**

	OECD(201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2017)	한국경제연구원 (유진성, 2019)
경제적 비용 추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600억 달러(최소 3,600억 달러에서 최대 6,050억 달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활동인구조사(최소 23조 8천억 원에서 최대 37조 1천억 원)</li> <li>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최소 25조 6천억 원에서 최대 41조 5천억 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7년 기준 49조 4천억 원 (국내 GDP의 2.7%에 해당)</li> </ul>
방법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니트가 취업했을 경우 벌어들이 수 있는 총 근로소득(사용주의 사회보장부담금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ECD의 방법론을 차용</li> <li>경제활동인구조사,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향점수매칭 기법 적용</li> <li>한국노동패널 자료 활용</li> </ul>
하한 추정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니트가 취업 시 저임금을 받는다고 가정</li> <li>성별과 연령이 동일한 취업 청년 임금 중위값의 2/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없음</li> </ul>
상한 추정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과 연령이 동일한 취업 청년과 동일한 임금으로 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없음</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분석 대상 국가에 미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는 약 178만 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18.9%를 차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금수준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방법론을 적용</li> </ul>

자료: 저자 작성.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유진성, 2019)에서는 기존의 OECD 방법론과 달리, 한국노동패널 자료와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기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청년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산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sup>2)</sup> 김유선(2017)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한 것과 달리 유진성(2019)에서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는

2) 여기서 유진성(2019)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성향점수매칭 기법으로 지칭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취업 청년과 미취업 청년의 여러 특성을 비교하여 유사한 성향을 가진 대상을 매칭(matching)한다는 점에서 일부 연관성이 있지만, 특정한 처치(treatment)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의 설정이나 처치 효과(또는 성과)를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유진성(2019)에서 성향점수매칭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이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이유는 청년 니트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청년 니트의 특성과 결정한 분석에 용이하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 취업자의 평균임금이나 임금 중위값의 2/3 등 일률적인 가정을 통해 청년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는 경우, 니트에 속하는 청년들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니트 청년 개인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성향점수매칭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특성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유진성(2019)에서는 만 15~29세의 청년층에서 취업자나 재학생이 아니면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이지 않는 경우를 청년 니트로 정의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한국노동패널 개인별 원자료에서 본인을 취업자라고 응답한 자, 지난 주 주요활동을 정규교육기관 통학이라고 응답한 자, 입시학원 통학, 고시학원·직업훈련기관 등 취업을 위한 학원 통학이라고 응답한 자, 기관통학이라고 응답한 자를 제외하여 청년 니트 규모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2017년 기준 청년 니트의 비중은 21.2%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한 분석 결과와 1~2%p 내외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변화 추이는 유사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니트 청년은 현재 취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향후 취업에 성공할 예상확률을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업 성공확률은 개인의 특성이나 성향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즉, 동일한 성향점수를 가진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매칭하여 니트 청년의 미래 소득수준을 예상하는 것이다. 여기서 응답자 개인의 성향점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이며, 관측 가능한 종속변수는 취업 또는 미취업의 두 가지 값을 갖게 되므로 로짓 모형(logit model)이나 프로비트 모형(probit model)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진성(2019)에서는 취업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변수로 성별, 나이, 교육수준, 혼인여부, 거주지역, 직업훈련 경험 유무, 가구의 소득수준, 가구원 수, 가구주 여부 등을 고려하였다.

이처럼 성향점수매칭 기법을 적용하여 청년 니트의 미래 소득수준을 추정한 결과, 니트의 월평균 소득은 실제 취업자의 약 79~8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응답자 개인별 특성에 따라 미래 소득수준 예상치는 각각 상이하게 도출되며, 평균임금이나 중위임금의 2/3 등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기존 OECD(2016)의 방법론보다는 유진성(2019)에서 제시한 방법론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년 니트의 취업 상태 또는 니트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성향점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니트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담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는 국가 단위의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년 니트의 증가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적 손실과 경제적 비용을 지역 단위로 산정하고 그 특성을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Ⅲ. 연구 방법 및 결과

#### 1. 분석 자료 및 모형

본 연구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니트 청년 규모와 니트 청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사회적 손실)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공식적인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청년 니트 규모에 대한 자료를 지역별로 추출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 검토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 규모는 경제활동 인구조사 자료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통해 계산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목적과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역별 청년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니트인 청년이 실제로 취업을 했다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수준을 현재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로 보고, 개별 니트 청년의 취업 시 소득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OECD(2016)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17)에서 적용한 중위임금 및 평균임금, 한국경제연구원(2019)에서 활용한 성향점수매칭 기법을 통한 유사 임금수준 추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음 <그림 6>은 본 연구에서 지역별 청년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분석 모형을 도식화하여 보여준다.

<그림 6> 본 연구의 분석 모형



자료 : 저자 작성.

먼저 본 연구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청년 니트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다른 일회성 조사들과는 달리 전국의 12,000여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한 23,000여 명의 개인을 매년 추적하는 대규모 패널 조사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어진 표본의 동태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개인과 가구의 특성,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의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등 수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니트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가구 표본의 이용가능 연도와 통합표본의 종단면 가중치 이용가능 연도 등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분석대상 범위로 선정하였다.

앞서 선행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 정규교육 및 훈련 상태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

고 있는데, 미취업자이면서 정규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니트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니트 기준을 수용하여 취업자 및 재학생이 아니며 학원이나 직업 훈련과 관련된 기관에 통학하고 있지 않는 15~29세 청년을 니트로 정의한다. 그리고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전체 응답자 중 본인을 취업자라고 선택한 자, 지난 1주간 주요활동으로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고시학원·직업교육기관 등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을 선택한 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청년 니트로 규정하였다.

다만, 전국 단위로 구성된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 일부 지역에 대한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연도별 표본 구성에 따른 차이가 크게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부산, 울산, 경남지역 청년 니트 규모를 시산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을 확대하여 시·군 단위 고용지표를 작성하는 통계이며, 전국의 23만 가구 내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취업여부, 취업시간, 구직여부, 구직활동, 월평균 임금, 이직횟수 및 이직사유, 비동거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등에 대한 원시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시·군·구 단위의 고용 현황과 산업 및 직업별로 세분화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정책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항목의 변화와 자료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청년 니트 현황을 파악하였다.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에서 청년 니트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를 제외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주된 활동상태가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 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인 응답자를 제외하였다. 특히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에서는 청년 니트를 구직 니트와 비구직 니트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구직 니트는 니트 청년 중에서 주된 활동 상태가 취업준비와 진학준비인 자료 정의하며 나머지는 비구직 니트에 해당한다.

이처럼 한국노동패널 자료와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함께 활용하는 이유는 전국 단위의 분석과 지역 단위의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지역별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sup>3)</sup>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통해 전국의 청년 니트 현황을 파악하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울·경 지역의 청년 니트 규모를 도출한다. 그리고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단위의 취업 청년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취업 청년과 니트 청년의 성향점수 매칭을 통해 니트 청년 1인의 평균 경제적 비용을 산정한다.<sup>4)</sup> 최종적으로 부·울·경 지역별 청년 니트 규모와 1인당 연간 경제적 비용을 곱하여 청년 니트로 인해 유발되는 경제적 비용의 크기를 지역별로 제시한다.

3)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는 응답자의 지역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4) 취업 청년과 니트 청년의 성향점수를 매칭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후 4절에 제시하였다.

## 2.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한 청년 니트 추정 결과

### 가. 우리나라 청년 니트 추정 결과

본 절에서는 먼저 2010~2019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전체의 청년 니트 규모를 추정 한 결과를 살펴본다. 한국노동패널 조사로부터 도출된 전국 기준 청년 니트의 비율은 2010년 17.7%에서 2019년 21.6%로 3.9%p 상승하였으며, 2010~2014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15년 이후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및 <그림 7> 참조). 성별에 따른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청년 니트 비율은 2010년 17.7%에서 2019년 24.9%로 7.2%p 상승한 반면 여성의 청년 니트 비율은 2010년 17.7%, 2019년 17.8%로 큰 변화가 없었다.

<표 5> 2010~2019년 청년 니트 인구 및 비율(전국)

(단위 : %, 명)

연도	청년 니트 비율			청년 니트 인구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2010	17.7	17.7	17.7	927,937	846,166	1,774,103
2011	17.2	18.9	18.0	934,870	923,489	1,858,359
2012	17.6	16.9	17.3	946,342	814,047	1,760,389
2013	17.5	16.9	17.2	929,024	804,296	1,733,320
2014	14.8	17.3	16.0	781,694	818,143	1,599,837
2015	18.8	20.0	19.4	994,578	940,787	1,935,365
2016	20.3	17.8	19.1	1,070,314	837,977	1,908,291
2017	22.1	17.9	20.1	1,155,857	832,427	1,988,284
2018	22.0	16.6	19.4	1,141,632	765,105	1,906,737
2019	24.9	17.8	21.6	1,275,753	811,838	2,087,5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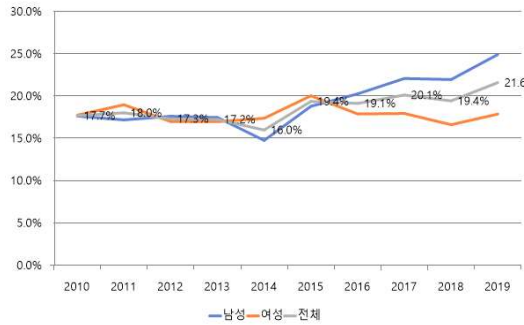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청년 니트 규모는 약 209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남성이 128만 명, 여성 81만 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을 제외하고는 남성의 청년 니트 규모가 여성에 비해 많았으며, 2015년 이후 여성 니트 청년은 대체로 감소하는 반면 남성 니트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과 비교할 때 2019년 남성 니트 청년은 약 35만 명이 증가하였고, 여성 니트 청년은 약 3만 4천 명이 감소한 상황이다.

<그림 7> 2010~2019년 청년 니트 규모 및 비율(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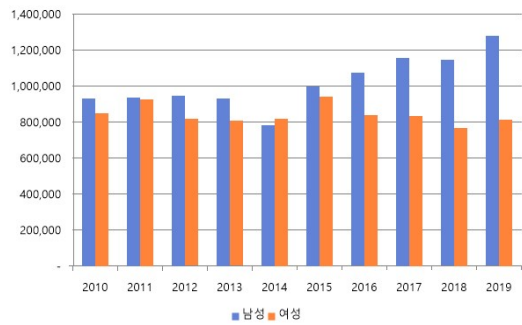
청년 니트 비율 추이(전국)

(단위 : %)



성별에 따른 청년 니트 인구 변화(전국)

(단위 : 명)



자료: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나. 부울경 지역 청년 니트 추정 결과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의 청년 니트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부·울·경 지역의 청년 니트 현황을 도출한 결과를 제시한다. 2019년 기준 부·울·경 전체의 청년 니트 비율은 21.8%이며 전국 청년 니트 비율에 비해 0.2%p 높은 상황이다(<그림 8> 참조). 부·울·경 청년 니트 비율은 2010년 15.6%에서 2019년 21.8%로 6.2%p 상승하였다. 앞서 제시한 전국 기준의 청년 니트 현황과 비교해보면 부·울·경 지역의 청년 니트 비율은 연도별 변동 폭이 전국에 비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노동패널 자료로부터 일부 지역 표본을 추출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추측된다. 부·울·경 전체의 청년 니트 인구는 2019년 기준 30만 명으로 2010년에 비해 약 6만 3천 명이 증가한 상황이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청년 니트 인구는 2013년에 약 3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6년에는 약 20만 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림 8> 2010~2019년 청년 니트 규모 및 비율(부·울·경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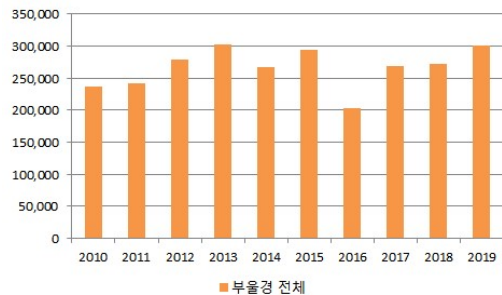
청년 니트 비율

(단위 : %)



청년 니트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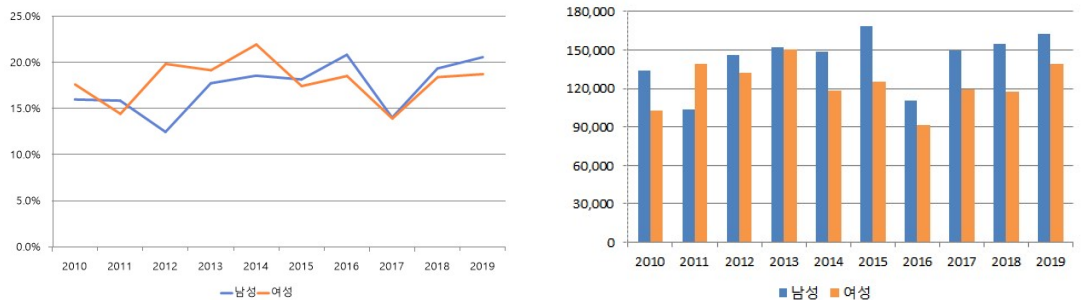
(단위 : 명)



자료: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울·경 전체의 청년 니트 자료를 성별에 따라 구분하면(<그림 9> 참조), 남성의 청년 니트 비율은 2010년 15.9%에서 2019년 20.5%로 4.6%p 상승한 반면 여성은 2010년 17.6%에서 2019년 18.8%로 1.2%p 상승에 그쳤다. 2019년 기준 부·울·경 전체의 청년 니트 인구는 남성 16만 2천 명, 여성 13만 8천 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았다.

**<그림 9> 성별에 따른 청년 니트 인구 및 비율(부·울·경 전체)**  
 성별에 따른 청년 니트 비율 (단위 : %)      성별에 따른 청년 니트 인구 (단위 : 명)



자료: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3.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한 청년 니트 추정 결과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청년 니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변화 추세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도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전국 단위로 구성된 표본에서 일부 지역의 표본을 추출하여 활용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추측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청년 니트 현황에 대한 보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개별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본 자료의 이용이 가능하며, 한국노동패널 자료보다 지역 데이터의 편차가 작은 만큼 구직 니트와 비구직 니트에 대한 분석도 유효해 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2015~2019년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청년 니트 현황에 대한 정보와 함께 니트의 특성에 따른 지역별 차이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 가.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청년 니트 추정 결과

먼저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 추정된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청년 니트 비율을 살펴 보면, 최근 5년간 대체로 모든 지역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표 6> 참조). 2015년 기준 청년 니트 비율은 울산 16.6%, 경남 14.8%, 부산 14.2%의 순이며 2019년에는 울산 18.6%, 경남 17.5%, 부산 15.2%의 순으로 지역 간 격차는 더 커진 것으

로 판단된다. 2015년 대비 2019년 상승폭은 경남이 2.7%p로 가장 컸으며, 부산은 1.0%p로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다. 2015~2019년 동안 울산은 부산 및 경남지역에 비해 항상 청년 니트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부·울·경 지역 전체의 청년 니트 규모는 약 21만 명으로 추정되며, 지역별로는 부산 8만 6천 명, 울산 3만 5천 명, 경남 9만 명으로 나타났다.

<표 6> 2015-2019년 청년 니트 인구 및 비율(부산, 울산, 경남)

(단위 : %, 명)

연도	청년 니트 비율				청년 니트 인구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평균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전체
2015	14.2	16.6	14.8	15.2	88,367	35,820	82,884	207,071
2016	13.8	18.2	13.0	15.0	85,095	38,450	72,001	195,546
2017	15.4	17.3	16.4	16.4	92,181	35,448	88,857	216,486
2018	15.5	18.7	15.5	16.6	90,334	36,627	82,125	209,086
2019	15.2	18.6	17.5	17.1	86,310	34,670	90,265	211,245

주 : 부울경 평균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 청년 니트 비율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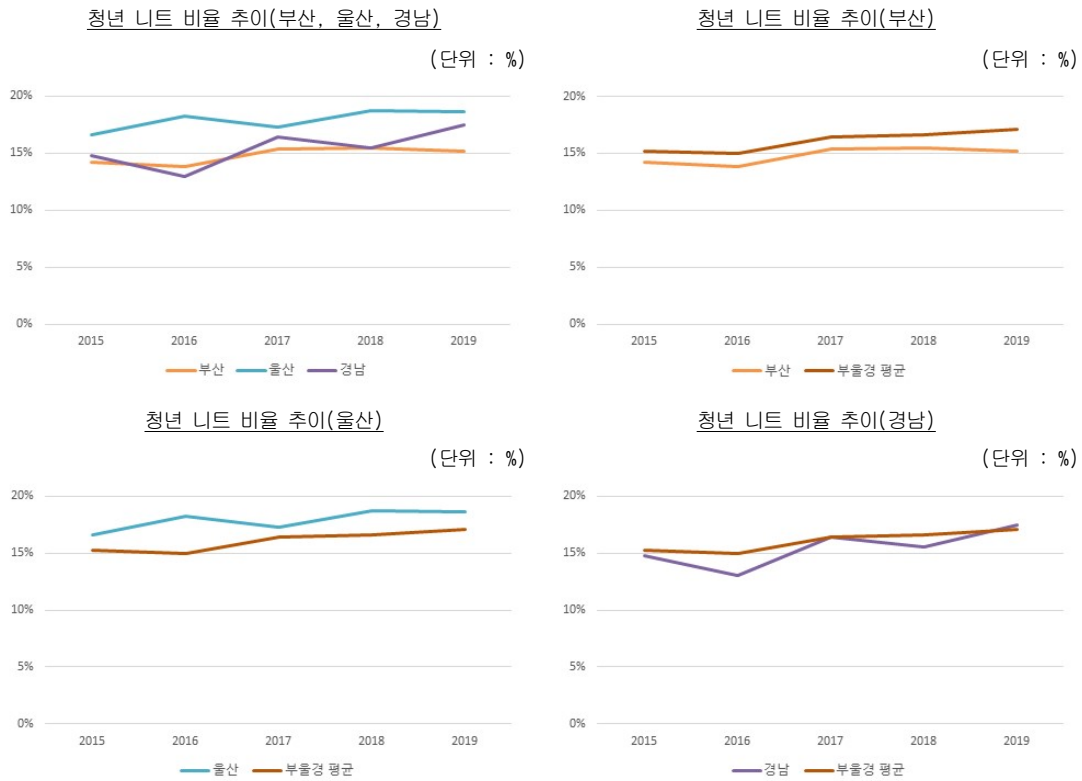
지역별 추이를 살펴보면 부산 지역은 청년 니트 비율이 2015년 14.2%에서 2016년 13.8%로 소폭 하락했지만, 2017년 이후 2019년까지 15%대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10> 참조). 부·울·경 청년 니트 비율의 평균과 비교하면 2018년까지는 청년 니트 비율이 거의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했지만, 2019년에 격차가 1.9%p까지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부산 청년 니트 규모는 약 8만 6천 명으로 2015년 8만 8천 명에 비해 약 2천 명이 감소했지만, 부산의 전체 청년 인구가 더 크게 감소하면서 청년 니트 비율이 상승하였다.

울산 지역의 청년 니트 비율은 2015년 16.6%에서 2019년 18.6%로 2.0%p 상승하였다. 부·울·경 청년 니트 비율의 평균과 비교하면 최근 5년간 전반적인 상승세는 유사하지만, 연도별로 등락 방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2019년 울산 지역의 청년 니트 규모는 약 3만 5천 명으로 2015년 3만 6천 명에 비해 천 명 정도 감소했지만, 울산 역시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청년 니트 비율이 상승하였다.

경남 지역은 청년 니트 비율이 2015년 14.8%에서 2016년 13.0%로 크게 하락했지만, 이후 상승하여 2019년 17.5%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9년 경남지역의 청년 니트 규모는 약 9만 명으로 부산, 울산과 달리 2015년 대비 청년 니트가 약 7천명 증가하였다.



<그림 10> 2015~2019년 청년 니트 비율(부산, 울산, 경남)



주 : 부울경 평균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 청년 니트 비율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나.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구직 니트 및 비구직 니트

청년 니트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할 수 있다. 김유선(2017)에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제시된 실업자에 잠재경제활동인구(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의 합)를 더해서 구직 니트 인구를 구하고, 나머지는 비구직 니트로 계산한 바 있다. 여기서 구직 니트란 니트 중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니트를 뜻하고, 비구직 니트는 니트 중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니트를 말한다. 앞서 제시한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는 구직 니트와 비구직 니트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지역별 고용조사를 바탕으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구직 니트 및 비구직 니트 현황을 분석하였다.

우선 구직 니트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구직 니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5.1%)이었으며 울산(4.2%), 부산(4.0%)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7> 및 <표 8> 참조). 최근 5년 간 모든 지역에서 구직 니트 비율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대비 2019년 상승폭은 경남지역이 2.3%p로 부산(0.4%p)과 울산(0.6%p)에 비

해 가장 컸다. 다음으로 비구직 니트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비구직 니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14.3%)이었으며, 이어서 경남(12.4%), 부산(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구직 니트 비율 역시 최근 5년 간 모든 지역에서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울산(1.4%p)이 부산(0.6%p)과 경남(0.4%p)에 비해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표 7> 2015~2019년 구직 및 비구직 청년 니트 비율(부산, 울산, 경남)

(단위 : %)

연도	부산 지역 청년 니트 비율			울산 지역 청년 니트 비율			경남 지역 청년 니트 비율		
	전체	구직 니트	비구직 니트	전체	구직 니트	비구직 니트	전체	구직 니트	비구직 니트
2015	14.2	3.6	10.6	16.6	3.7	12.9	14.8	2.8	12.0
2016	13.8	3.2	10.7	18.2	3.2	14.9	13.0	3.3	9.7
2017	15.4	3.5	11.9	17.3	4.2	13.2	16.4	3.0	13.4
2018	15.5	4.2	11.2	18.7	4.2	14.5	15.5	4.2	11.3
2019	15.2	4.0	11.2	18.6	4.2	14.3	17.5	5.1	12.4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8> 2015~2019년 구직 및 비구직 청년 니트 규모(부산, 울산, 경남)

(단위 : 명)

연도	부산 지역 청년 니트 규모			울산 지역 청년 니트 규모			경남 지역 청년 니트 규모		
	전체	구직 니트	비구직 니트	전체	구직 니트	비구직 니트	전체	구직 니트	비구직 니트
2015	88,367	22,390	65,977	35,820	7,954	27,866	82,884	15,485	67,399
2016	85,095	19,441	65,654	38,450	6,852	31,598	72,001	18,369	53,632
2017	92,181	20,870	71,311	35,448	8,505	26,943	88,857	16,222	72,635
2018	90,334	24,733	65,601	36,627	8,175	28,452	82,125	22,239	59,886
2019	86,310	22,557	63,753	34,670	7,936	26,734	90,265	26,083	64,182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전국 단위로 구성된 표본에서 일부 지역의 표본만 추출하여 활용하기 때문에 연도별 표본 구성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진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는 부·울·경 지역별로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므로 분석 결과가 비교적 안정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청년 니트의 경제적 비용 산정에 필요한 청년 니트 인구는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 산정한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청년 니트 규모 추정 결과를 활용하기로 한다.

#### 4. 청년 니트의 경제적 비용 추정 결과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대상으로 청년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니트 상태인 청년이 실제로 취업을 했었다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수준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청년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가진 취업 청년과 니트 청년을 매칭함으로써 니트 청년이 유발시키는 경제적 비용의 크기를 가늠하고자 한다. 그리고 앞서 제시한 지역별 청년 니트 인구를 반영하여 연도별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발생하는 청년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산정한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과 결과는 다음 절에 기술한다.

##### 가. 청년 취업 결정요인 분석 결과

니트 청년은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니트 청년이 만약 일을 하고 있다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의 크기는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경제적 손실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니트 청년이 일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소득의 크기는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다. 앞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OECD(2016)과 김유선(2017)에서는 청년 취업자가 받는 임금 중위값의 2/3를 하한선으로, 청년 취업자의 임금 평균값을 상한선으로 설정한 바 있다. 유진성(2019)에서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청년 취업자 대비 니트의 소득 비율을 79.06%에서 88.59% 정도로 제시하였다. 즉, 니트 청년이 취업하게 되는 경우 받게 될 임금의 크기는 현재 청년 취업자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취업 청년과 니트 청년을 매칭하는 유진성(2019)의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실제로 유진성(2019)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을 성향점수매칭 기법으로 지칭하고 있다. 성향점수매칭 기법은 특정 조건을 만족시킨 한 그룹의 성과를 나머지 그룹과 단순 비교하는 경우 발생하는 표본선택편이(sample selection bias)를 방지하고 특정 조건에 대한 예상 확률에 근거한 통계적 매칭 방법이다(Rosenbaum and Rubin, 1983; 김소연·백종일, 2016). 성향점수매칭 기법은 교육이나 의료 분야에서 적용되었으며, 최근 기업의 경영성과나 정부의 R&D 투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백철우·전봉걸, 2019; 이기순·윤형덕, 2021; 이인우 외, 2016; 표한형·홍성철,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성향점수매칭 기법의 목적이나 구조와 일치하지 않지만, 취업 청년과 니트 청년을 매칭하는 과정에서 성향점수매칭 기법의 개념을 일부 활용하고자 한다.

청년의 취업은 개인의 특성이나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을 결정짓는 확률을 성향점수로 산정하고, 그 성향점수를 매칭하여 니트 청년이 취업할 경우 받게 될 소득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 이 때 성향점수는 개인 특성 변수  $X$ 의 함수로 표현되

며, 관측 가능한 종속변수인 취업 여부가 1 또는 0의 값을 갖는 이항변수이므로 로짓 모형(logit model) 또는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1) \text{Propensity score} = P(X) = \Pr(D=1|X)$$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 변수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여부, 거주지역, 가구주 여부,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취업 준비와 관련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직업훈련경험과 자격증 유무를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청년의 취업은 개인의 특성 외에도 청년이 속한 가구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구 특성 변수로서 가족 구성원 수, 부모님과 동거 여부, 입주형태, 가구소득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 따라서 청년의 취업에 대한 결정요인 추정 모형은 다음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2) \text{Job}_i = \beta_0 + \beta_1 \text{male}_i + \beta_2 \text{age}_i + \beta_3 \text{edu}_i + \beta_4 \text{marr}_i + \beta_5 \text{seoul}_i + \beta_6 \text{hhead}_i \\ + \beta_7 \leq \text{vel}_i + \beta_8 \text{training}_i + \beta_9 \text{license}_i + \beta_{10} \text{family}_i + \beta_{11} \text{parents}_i \\ + \beta_{12} \text{house}_i + \beta_{13} \text{hincome}_i + \epsilon_i$$

여기서 종속변수인 취업(Job)은 취업자인 경우 1, 미취업자인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독립변수인 성별(male)은 남성 1, 여성 0의 더미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연령(age)은 응답자의 만 나이를 의미한다. 교육수준(edu)은 응답자의 교육수준을 9단계로 측정된 값을 반영하였으며, 혼인여부(marr)는 미혼을 0, 나머지는 1로 설정하였다. 서울과 서울 외 지역은 취업 정보나 상황이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어 거주지역(seoul) 변수는 서울 거주자의 경우 1, 나머지 지역은 0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응답 청년이 가구주인 경우 취업 의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가구주 여부(hhead)에 대한 변수를 더미변수로 추가하였다. 응답자가 생각하는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leq \text{vel}$ )는 청년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다고 가정하여 6단계로 측정된 값을 활용하였다.

한편 응답자가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취업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직업훈련경험(training)은 받아본 경험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설정하였다.<sup>5)</sup> 직업훈련 외 교육을 또한 자격증(license)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설정하여 청년이 보유한 자격증이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족구성원 수(family)는 청년이 속한 가구의 구성원 수를 반영하였으며, 부모님과 동거 여부(parents)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1, 아닌 경우 0인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입주형태(house)는 자가인 경우 1, 아니면 0으로 설정하였으며, 가구소득(hincome)은 청년이 속한 가구의 근

5) 직업훈련 이외의 교육을 받는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으나, 모형 추정 과정에서 다중공선성 문제가 일부 발생하여 최종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수급액, 사회보험수급액 제외 이전소득 및 기타 소득의 합계를 반영하였다.<sup>6)</sup>

청년의 취업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프로빗 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성향점수로 반영되어 청년 니트 개인별 소득수준을 산정하는 과정에 활용된다. 즉, 현재 취업 상태의 청년과 니트 상태의 청년을 비교하여 동일한 특성을 갖는 경우 두 사람이 받게 되는 소득 수준도 유사할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다.<sup>7)</sup> 이 경우 청년의 취업을 반드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의 만 15~29세 표본을 대상으로 모형을 추정하였으며, 전국 단위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청년 니트 인구는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 도출한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므로 분석기간은 2015~2019년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근로소득은 연도별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015~2019년의 자료를 풀링(pooling)하지 않고, 연도별로 동일한 모형을 각각 추정하였다. 다음 <표 9>는 분석에 활용된 변수의 정의와 기초통계량을 나타낸다.

<표 9> 주요 변수의 정의 및 세부내용

변수	정의 및 세부 내용	표본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종속변수	취업자이면 1, 아니면 0	0.30	0.30	0.31	0.31	0.31	
성별	남성이면 1, 여성이면 0	0.50	0.51	0.51	0.50	0.50	
연령	응답자의 만 나이(세)	21.8	21.7	22.0	21.9	21.9	
교육수준	응답자의 교육수준을 9단계로 측정 (미취학=1, 무학=2, 초등학교=3, 중학교=4, 고등학교=5, 2년제 대학/전문대학=6, 4년제 대학=7, 대학원 석사=8, 대학원 박사=9)	5.91	5.91	5.93	5.91	5.91	
개인 특성 변수	혼인여부	미혼이 아니면 1, 미혼이면 0	0.06	0.05	0.06	0.06	0.05
	거주지역	서울 지역이면 1, 아니면 0	0.17	0.17	0.16	0.17	0.18
	가구주	가구주이면 1, 아니면 0	0.09	0.10	0.09	0.09	0.08
	사회경제적 지위	응답자가 생각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6단계로 측정(하하=1, 하상=2, 중하=3, 중상=4, 상하=5, 상상=6)	2.91	2.93	2.89	2.98	2.96
	직업훈련경험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1, 없으면 0	0.03	0.03	0.03	0.04	0.03
	자격증	자격증이 있으면 1, 없으면 0	0.02	0.02	0.02	0.05	0.02
	가족구성원 수	응답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수(명)	3.72	3.70	3.73	3.69	3.71
가구 특성 변수	부모동거여부	부모님과 동거하면 1, 아니면 0	0.40	0.37	0.39	0.40	0.39
	임주형태	자가인 경우 1, 아니면 0	0.60	0.60	0.60	0.62	0.63
	가구소득	월 가구소득 합계(지난달 기준, 만 원)	447.0	452.9	513.1	489.8	504.5

자료 : 저자 작성.

- 6) 부모의 교육수준은 무응답인 경우 제외되므로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7) 엄밀한 의미에서 청년 취업자와 청년 니트만을 분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두 그룹을 구분하여 매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미취업자 중 청년 니트에 대한 매칭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산정하므로 전체 청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한국노동패널조사 18차 자료를 이용하여 2015년 청년 취업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개인특성변수 중에는 거주지역과 자격증 유무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청년의 취업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특성변수 중에는 가족 구성원 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2015년에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취업 확률이 높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미혼인 경우 취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확률은 낮아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고학력 니트 현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구주인 경우 사전적인 예상과 동일하게 취업 확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취업 확률은 상승했으며, 특히 직업훈련경험이 있는 청년의 취업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가구소득이 높으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취업 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가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취업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청년 취업에 대한 결정요인 추정 결과: 2015년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p-value
상수항	-4.6832 ***	0.3497	0.000
성별	-0.3713 ***	0.0720	0.000
연령	0.2532 ***	0.0125	0.000
교육수준	-0.2218 ***	0.0444	0.000
혼인여부	-1.0447 ***	0.1407	0.000
거주지역	-0.0841	0.0929	0.365
가구주	1.1993 ***	0.1580	0.000
사회경제적 지위	-0.0991 **	0.0470	0.035
직업훈련경험	0.5435 ***	0.2100	0.010
자격증	0.1951	0.2543	0.443
가족구성원 수	-0.0452	0.0420	0.281
부모동거여부	0.2365 ***	0.0757	0.002
입주형태	-0.2645 ***	0.0809	0.001
가구소득	0.0007 ***	0.0001	0.000

Number of obs = 2304, LR chi2(13) = 1123.41, Prob > chi2 = 0.0000

주 :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 저자 작성.

다음으로 2016년 청년 취업 결정요인 추정 결과에서는 모든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과 방향성이 2015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표 11> 참조). 2017년 추정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유의하지 않은 반면 자격증이 취업 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표 12> 참조).

<표 11> 청년 취업에 대한 결정요인 추정 결과: 2016년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p-value
상수항	-4.0195 ***	0.3283	0.000
성별	-0.2701 ***	0.0697	0.000
연령	0.2314 ***	0.0122	0.000
교육수준	-0.2207 ***	0.0441	0.000
혼인여부	-0.5485 ***	0.1423	0.000
거주지역	-0.0250	0.0904	0.782
가구주	1.1651 ***	0.1541	0.000
사회경제적 지위	-0.1558 ***	0.0458	0.001
직업훈련경험	0.3729 **	0.1752	0.033
자격증	-0.0617	0.2531	0.807
가족구성원 수	-0.0659	0.0408	0.106
부모동거여부	0.2078 ***	0.0738	0.005
입주형태	-0.1971 **	0.0789	0.012
가구소득	0.0007 ***	0.0001	0.000

Number of obs = 2283, LR chi2(13) = 1032.62, Prob > chi2 = 0.0000

주 :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 저자 작성.

<표 12> 청년 취업에 대한 결정요인 추정 결과: 2017년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p-value
상수항	-4.1614 ***	0.3250	0.000
성별	-0.3267 ***	0.0679	0.000
연령	0.2346 ***	0.0118	0.000
교육수준	-0.2214 ***	0.0425	0.000
혼인여부	-0.6809 ***	0.1336	0.000
거주지역	-0.0323	0.0877	0.712
가구주	0.9505 ***	0.1467	0.000
사회경제적 지위	-0.0629	0.0448	0.160
직업훈련경험	0.7391 ***	0.1803	0.000
자격증	0.9301 *	0.2176	0.073
가족구성원 수	-0.0382	0.0384	0.320
부모동거여부	0.1334 *	0.0716	0.062
입주형태	-0.1910 ***	0.0741	0.010
가구소득	0.0001 ***	0.0000	0.003

Number of obs = 2420, LR chi2(13) = 1067.63, Prob > chi2 = 0.0000

주 :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 저자 작성.

&lt;표 13&gt; 청년 취업에 대한 결정요인 추정 결과: 2018년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p-value
상수항	-4.4094 ***	0.2646	0.000
성별	-0.3405 ***	0.0558	0.000
연령	0.2343 ***	0.0095	0.000
교육수준	-0.2021 ***	0.0346	0.000
혼인여부	-0.7358 ***	0.1115	0.000
거주지역	0.0369	0.0712	0.604
가구주	1.5132 ***	0.1243	0.000
사회경제적 지위	-0.1519 ***	0.0376	0.000
직업훈련경험	0.4508 ***	0.1353	0.001
자격증	0.4200 ***	0.1140	0.000
가족구성원 수	-0.0420	0.0326	0.198
부모동거여부	0.1397 **	0.0589	0.018
입주형태	-0.0363	0.0622	0.559
가구소득	0.0007 ***	0.0001	0.000

Number of obs = 3686, LR chi2(13) = 1787.28, Prob > chi2 = 0.0000

주 :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 저자 작성.

&lt;표 14&gt; 청년 취업에 대한 결정요인 추정 결과: 2019년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p-value
상수항	-4.1475 ***	0.2629	0.000
성별	-0.4015 ***	0.0569	0.000
연령	0.2397 ***	0.0094	0.000
교육수준	-0.2541 ***	0.0351	0.000
혼인여부	-0.6534 ***	0.1183	0.000
거주지역	-0.0608	0.0726	0.402
가구주	1.1460 ***	0.1263	0.000
사회경제적 지위	-0.0999 ***	0.0340	0.003
직업훈련경험	0.7933 ***	0.1775	0.000
자격증	0.6201 ***	0.1938	0.001
가족구성원 수	-0.0709 **	0.0329	0.031
부모동거여부	0.0937	0.0598	0.117
입주형태	-0.0473	0.0641	0.460
가구소득	0.0006 ***	0.0001	0.000

Number of obs = 3457, LR chi2(13) = 1608.20, Prob > chi2 = 0.0000

주 :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 저자 작성.



2018년 청년 취업 결정요인 추정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과 자격증 유무가 모두 취업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가 등의 입주 형태는 취업 확률에 유의미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표 13〉 참조). 이러한 현상은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났지만, 이전까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가족 구성원 수가 2019년 추정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취업을 하지 않고 니트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있지만, 본 연구의 추정 결과에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의 취업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9년 추정 결과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표 14〉 참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모형 추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설명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일부 차이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연도별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15〉 참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개인특성변수 및 가구특성변수를 기준으로 청년의 취업 확률 또는 성향점수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다음 절에서는 성향점수가 가장 유사한 취업 청년과 니트 청년을 매칭하여 니트 청년의 임금 수준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경제적 비용을 산정하고자 한다.

〈표 15〉 청년 취업에 대한 결정요인 추정 결과 요약

변수	2015	2016	2017	2018	2019
성별	-	-	-	-	-
연령	+	+	+	+	+
교육수준	-	-	-	-	-
혼인여부	-	-	-	-	-
거주지역					
가구주	+	+	+	+	+
사회경제적 지위	-	-		-	-
직업훈련경험	+	+	+	+	+
자격증			+	+	+
가족구성원 수					-
부모동거여부	+	+	+	+	
입주형태	-	-	-		
가구소득	+	+	+	+	+

주 : 유의수준 10%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만 표기함.  
 자료 : 저자 작성.

## 나. 청년 니트의 경제적 비용 산정 결과

청년 취업 결정요인 분석 모형에서 고려한 독립변수를 바탕으로 니트 청년과 가장 유사한 특성(성향)을 갖는 취업 청년을 매칭하고, 해당 취업 청년이 실제로 받고 있는 임금을 니트 청년이 취업 시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가정하면 니트 청년으로 인해 유발되는 경제적 손실의 크기를 산정할 수 있다. 이 때 경제적 손실의 크기는 청년 개인의 소득에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다(OECD, 2016; 유진성, 2019).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금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4대 보험부담금을 의미하며,<sup>8)</sup> 각 연도별로 4대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구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5~2019년까지 연도별 우리나라 4대 보험요율의 합계를 정리하였으며, 니트 청년의 예상 소득에 2015년 10.33%, 2016년 10.36%, 2017년 10.36% 2018년 10.40%, 2019년 10.44%<sup>9)</sup>의 사회보장부담금을 합하여 경제적 비용을 도출하였다.

앞서 제시한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청년 응답자별 성향점수를 도출하고 개인별 성향점수를 기준으로 취업 청년과 니트 청년을 매칭한 결과, 연도별 청년 취업자의 평균 소득과 니트 청년의 1인당 평균 예상 소득 추정치는 <표 16>과 같다. 2015~2019년까지 니트 청년의 월평균 소득 추정치는 취업 청년의 실제 소득과 비교했을 때 최소 80%에서 최대 9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니트 상태에 놓인 청년들이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받게 될 예상 소득은 취업 청년의 평균 임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지 않은 수준이라 판단된다. 특히 2015년에 비해 2017년에는 취업 청년 대비 니트 소득 비율이 약 11%p 상승하여, 그만큼 높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니트 상태에 빠지면서 경제적 비용을 유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6> 취업 청년의 실제 소득과 니트 청년의 1인당 평균 예상 소득 추정치 비교

(단위 : 만 원/월)

연도	고용주 사회보장부담금 제외		고용주 사회보장부담금 포함		취업 청년 대비 니트 소득 비율
	취업 청년	니트 청년	취업 청년	니트 청년	
2015	176.59	141.41	194.83	156.02	80.08%
2016	177.36	150.31	195.73	165.88	84.75%
2017	188.79	172.13	208.35	189.96	91.17%
2018	197.83	169.15	218.41	186.74	85.50%
2019	202.79	178.35	223.96	196.96	87.95%

자료 : 저자 작성.

- 8)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하였으며, 고용보험은 150명 미만 사업자 기준, 산재보험은 평균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였다.  
 9) 2019년 고용보험(150명 미만 사업자 기준) 요율은 1월~9월까지 0.90%, 10~12월까지 1.05%이므로 이를 가중 평균하여 적용하였다.

상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니트 청년 인구와 니트 청년의 1인당 평균 예상 소득을 결합하여 연간 경제적 비용을 산정하였다. 먼저 부산 지역 니트 청년의 경제적 비용을 추정된 결과(<표 17> 참조), 2019년 기준 니트의 경제적 비용은 약 2조 40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GRDP의 2.1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 청년의 연간 경제적 비용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2019년까지 소폭 감소하였으며, GRDP 대비 비중 역시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17> 부산 지역 니트 청년의 경제적 비용 추정 결과

연도	니트 청년(명)	1인당 경제적 비용(만 원) <sup>1)</sup>	총 경제적 비용(억 원)	GRDP(명목, 억 원)	GRDP 대비 비중(%)
2015	88,367	1,872.25	16,544.53	827,015.0	2.00
2016	85,095	1,990.58	16,938.82	855,363.5	1.98
2017	92,181	2,279.51	21,012.77	878,356.0	2.39
2018	90,334	2,240.94	20,243.30	899,799.0	2.25
2019	86,310	2,363.56	20,399.86	930,121.3	2.19

주 : 1) 니트 청년의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한 예상 소득 × 12개월  
 자료 : 저자 작성.

한편 울산 지역 니트 청년의 경제적 비용을 추정된 결과(<표 18> 참조), 2019년 기준 니트의 경제적 비용은 약 8,194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울산 지역 GRDP의 1.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지역 니트 청년의 연간 경제적 비용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에 소폭 감소하였으며, GRDP 대비 비중 역시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울산 지역의 니트 청년 인구가 부산 대비 40% 수준이므로 연간 경제적 비용의 크기 자체는 작지만 GRDP 대비 경제적 비용의 비중은 부산 대비 50% 수준에 해당하므로, 니트 청년 규모에 비해 경제적 손실의 비중이 좀 더 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표 18> 울산 지역 니트 청년의 경제적 비용 추정 결과

연도	니트 청년(명)	1인당 경제적 비용(만 원) <sup>1)</sup>	총 경제적 비용(억 원)	GRDP(명목, 억 원)	GRDP 대비 비중(%)
2015	35,820	1,872.25	6,706.41	728,544.1	0.92
2016	38,450	1,990.58	7,653.77	746,608.4	1.03
2017	35,448	2,279.51	8,080.42	757,500.7	1.07
2018	36,627	2,240.94	8,207.89	736,475.4	1.11
2019	34,670	2,363.56	8,194.45	746,546.3	1.10

주 : 1) 니트 청년의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한 예상 소득 × 12개월  
 자료 :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경남 지역 니트 청년의 경제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표 19> 참조), 2019년 기준 니트의 경제적 비용은 약 2조 1,335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경남 지역 GRDP의 1.8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지역 니트 청년의 연간 경제적 비용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일정한 추세 없이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최근 5년 중에서 2019년의 니트 청년 규모와 총 경제적 비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니트 청년에 대한 대응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표 19> 경남 지역 니트 청년의 경제적 비용 추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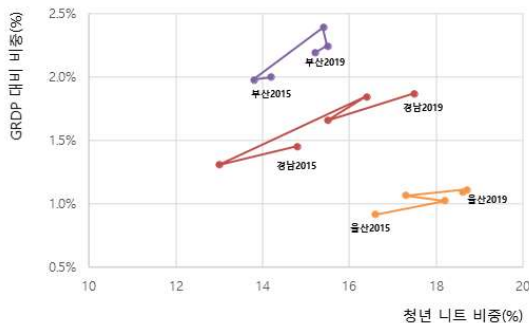
연도	니트 청년(명)	1인당 경제적 비용(만 원) <sup>1)</sup>	총 경제적 비용(억 원)	GRDP(명목, 억 원)	GRDP 대비 비중(%)
2015	82,884	1,872.25	15,517.97	1,065,909.0	1.46
2016	72,001	1,990.58	14,332.36	1,093,382.0	1.31
2017	88,857	2,279.51	20,255.06	1,094,922.0	1.85
2018	82,125	2,240.94	18,403.71	1,107,202.0	1.66
2019	90,265	2,363.56	21,334.65	1,140,209.0	1.87

주 : 1)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한 니트 청년의 예상 소득 × 12개월  
 자료 :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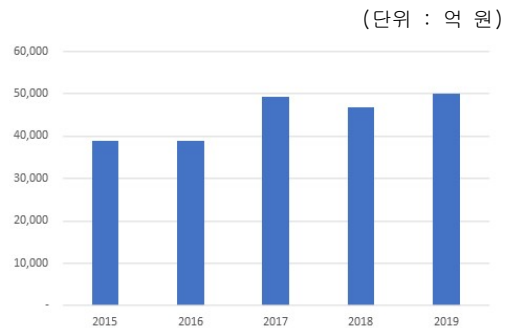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니트 청년으로 인해 유발되는 경제적 비용을 합산하면 2019년 기준 약 5조 원, GRDP 대비 1.77% 수준이며, 이는 2015년에 비해 1조 1,160억 원 증가한 수치이다(<그림 11> 참조). 특히 부산은 GRDP 대비 니트 청년의 경제적 비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해당하므로 추후 니트 청년의 규모와 경제적 손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11> 부산, 울산, 경남지역 니트 청년의 경제적 비용

지역별 니트 경제적 비용 이동 경로



부·울·경 지역 니트 청년의 경제적 비용 합계



자료 : 저자 작성.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청년 니트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청년 니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청년 니트 규모를 추정된 결과, 2019년 기준 청년 니트는 약 209만 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전체 청년 인구의 21.6%에 해당한다.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하여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청년 니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대체로 모든 지역에서 청년 니트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9년 기준 부·울·경 지역 전체의 청년 니트 규모는 약 21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청년 니트를 구직 니트와 비구직 니트로 구분했을 때 2015~2019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구직 니트 비율과 비구직 니트 비율은 모든 지역에서 상승하였으며 구직 니트에 비해 비구직 니트의 규모가 2~3배가량 큰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 청년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로 청년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모형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의 취업 확률(성향점수)이 가장 유사한 취업 청년과 니트 청년을 매칭한 후 현재 니트 상태인 청년이 실제로 취업을 했었다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수준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니트 청년의 예상 소득 추정치는 청년 취업자의 평균 소득 대비 최소 80%에서 최대 9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 청년의 예상 임금과 니트 청년의 규모를 결합하였을 때, 부·울·경 지역에서 니트 청년으로 인해 유발되는 경제적 비용은 2019년 기준 약 5조 원, GRDP 대비 1.77%로 추정되었다. 이는 2015년에 비해 1조 1,160억 원 증가한 수치이다.

이와 같은 상당한 크기의 경제적 비용을 감안할 때, 현재 청년 니트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청년 실업률과 마찬가지로 청년 니트 인구를 공식적인 통계로 정기적으로 추산·발표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공식 통계는 정부 및 지자체가 청년 고용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청년 인구가 유출되는 비수도권 지방정부에서는 청년 니트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이를 통한 정밀한 정책 수립이 더욱 긴요한 상황이다. 최근 부산, 울산, 경남 지자체들은 지역의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인프라 등 청년층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부·울·경 지역의 청년 니트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청년 고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면,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한 수도권 집중화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대상으로 청년 니트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진 청년 니트 연구이며 청년실업 대응 정책에 참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국 단위로 수집된 표본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자료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 결과의 적합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별 청년 니트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고용 및 실업 지표 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현실적인 대응 정책 마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청년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론의 측면에서도 청년의 지역 간 이동이나 소득 분포 등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추진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금재호, 전용일, 조준모(2007), 한국형 니트(NEET)개념을 통한 한국형 청년실업의 경제학적 고찰, 노동부.
- 김기현(2017), “한국 니트 청년(NEET)의 정의와 결정요인”, KLI 패널 워킹페이퍼, 8(8), 한국노동연구원.
- 김기현(2019), “니트 청년(NEET) 대상별 지원정책 방안”, 한국청소년학회 학술대회, 93-114.
- 김소연, 백종일(2016),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사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관한 연구”, 신뢰성응용연구, 16(4), 323-330.
- 김유선(2017), “한국의 니트 청년 특징과 경제적 비용”, KLSI Issue Paper 제10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종욱(2017), “최근 청년층 니트(NEET)의 특징과 변화”, 노동리뷰, 2017년 제10호, 97-110.
- 남재량(2006), “니트 청년(NEET)의 실태와 결정요인 및 탈출요인 연구”, 제7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 남재량(2011), “최근 니트 청년의 현황과 추이”, 노동리뷰, 29-40.
- 노현주, 김운태(2019), “한국 니트 청년(NEET)의 특성과 영향 요인: 학력 수준별 비교 분석”, 공공사회연구, 9(4), 73-105.
- 문순영(2019), “우리나라 니트 청년(NEET)와 지원 정책 실태”, 한국청소년학회 학술대회, 11-34.
- 백철우, 전봉걸(2019), “성향점수매칭(PSM) 방법론을 활용한 날씨경영의 경영성과 제고효과 분석”, 한국기후변화학회지, 10(2), 111-116.
- 오민홍(2007), “NEET의 결정요인 분석”, 제6회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231-242.
- 유진성(2019), “청년층 니트의 특성 분석 및 비용 추정과 정책적 함의”, KERI 정책제언 19-12, 한국경제연구원.
- 이규용 외(2015), “제17차(2014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 이기순, 윤형덕(2021), “성향점수매칭(PSM)과 실태조사를 통한 전문가 창업기업 성과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1년 5월, 181-198.

- 이로미, 박가열, 정연순(2010), “니트 청년 유형과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진로교육연구, 23(1), 153-175.
- 이민서, 김사현(2021), “니트 청년(NEET) 변화 유형 비교: 4년제 대학 졸업자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8(2), 71-101.
- 이인우 외(2016),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지원사업 성과분석 : 성향점수매칭PSM 방법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31(1), 141-163.
- 이장현(2019), “우리나라 니트 청년(NEET)와 지원 정책 실태에 대한 토론편”, 한국청소년학회 학술대회, 37-40.
- 정연순, 변정현, 황여정, 宮本みち子(2014), “2013 취업지원을 위한 니트 청년 실태조사”, 한국고용정보원.
- 정현상(2016), “청년층 경제활동상태 선택요인,” 월간 노동리뷰, 2016(11), 69-82.
- 조대연, 김은비, 김경근, 정홍인(2018), “우리나라 고학력 니트 청년층의 유형화와 니트 탈출방안,” 역량개발학습연구(구 한국HRD연구), 13(2), 165-190.
- 채창균, 민주홍, 양정승, 정지운(2015), “니트 청년(NEET)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The HRD Review, 18(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채창균, 오호영, 정재호, 김기현, 남기곤(2008), “유휴청년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표한형, 홍성철(2013), “성향점수매칭을 이용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장기성과 분석”, 응용경제, 15(3), 39-71.
- 홍진주(2021), “청년니트의 사회적 배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49-354.
- Carcillo, S. et al.(2015), NEET youth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s: Challenges and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164.
- European Commission(2011), Youth neither in Employment nor Education and Training(NEET): Presentation of Data for the 27 Member States, EMCO Contribution.
- Mendolia, S. and I. Walker(2015), Youth unemployment and the effect of personality traits,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pp. 1-36.
-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4: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OECD(2016), Society at a Glance 2016: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OECD(2019), Society at a Glance 2019: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Rosenbaum, P. and D.B. Rubin(1983),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Biometrika*, 70(1), 41-55.